

## 옹방강(翁方綱)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희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학문적 경향\*

김홍매\*\*

- I. 서론
- II. 옹방강의 학문적 경향
- III. <실사구시설>의 의미
- IV. 한학과 송학의 관계
- V. 사승(師承)의 중시
- VI. 결론

### <국문초록>

김정희가 살았던 19세기의 청나라는 고증학이 전성기에 처해 있던 시점이었다. 김정희는 청나라를 방문하고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옹방강(翁方綱), 완원(阮元)과 사승관계를 맺었고, 청대의 학술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은 김정희의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청대 학술과의 영향 관계가 제대로 구명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김정희의 경학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도한 옹방강이 청대 고증학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 있었던 사람인지, 김정희의 학문이 당시의 조선 학문 및 청나라의 학문과 어떤 면에서 계승관계 혹은 영향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논문은 중국 광둥성의 2019년도 보통대학교 인정류 과학연구프로젝트(普通高校認定類科 研項目) 『만청 송시풍이 조선 후기 문학에 준 영향 연구(晚清宋詩風對朝鮮後期文學的影響研究)』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WTSCX156)

\*\* 중국 광둥외어의무대학 남국상학원 부교수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정희의 고증학 경향을 보여주는 글로 평가되는 <실사구시설>을 중심으로 고증학에 대한 김정희의 관점을 옹방강과의 비교 및 청대 학술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옹방강은 청대 고증학이 전성기에 처한 시기에 생활하였던 사람으로, 고증학의 영향을 깊이 받기는 하였지만 청대 학술에서 그의 위치는 고증학 학자가 아니라 이학자이며, 고증학을 의리지학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 고증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비판하고 배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희는 고증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훈고와 의리에 대한 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옹방강과 다르지 않다. 그의 <실사구시설>은 훈고를 중시하되 그것은 의리를 밝히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글이다. 또한 사승과 가학을 강조하면서 경전과 한대 학자인 정현(鄭玄)의 주석의 정통적 지위를 수호하려는 태도는 진정한 실사구시적 태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증학보다는 성리학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핵심어: 김정희, 옹방강, 실사구시, 고증학, 성리학

## 1. 서론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은 선행연구에서 그의 학문적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글로 논의되어 왔다.<sup>1)</sup> 실사구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내용을 구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훈고를 말한다. 즉 실사구시란 공소한 의론을 펼치지 않고 훈고에 근거하여 진실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사구시 자체의 의미에만 천착해서 그의 글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김정희는 당시 누구보다

1) 이선경, 『秋史 金正喜 思想의 實事求是의 특성』, 『한국철학논집』 19, 한국철학사연구회, 361~384; 신창호,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實事求是)' 교육관—'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7, 한국교육사학회, 29~50면; 이선경, 『秋史 金正喜 思想의 實事求是의 특성』, 『한국철학논집』 19, 한국철학사연구회, 361~384면.

청나라의 학술에 밝았으며 당시 최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므로, 그의 경학 이해의 근본이 되는 ‘실사구시’라는 명제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청대 고증학과 그가 사승했던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완원(阮元, 1764~1849) 두 학자의 학문적 경향과 결부시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청대 고증학은 일반적으로 청대 초에 고염무(顧炎武, 1613~1682)로부터 시작되어 건륭(乾隆), 가경(嘉慶) 연간에 전성기에 이르렀던, 고문헌에 대한 정리 고증과 연구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진가 고증학은 소학(小學)을 선도(先導)와 중심으로 하되 소학에서는 음운학을 핵심으로 하며, 『사서』에서 경·사·자·집을 다 함께 취급하되 경사를 중심으로 하며, 고거와 의리를 함께 중시하지만 고거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의리지학(義理之學)은 고거학에 포함되지 않는다.<sup>2)</sup>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살았던 19세기는 청대 고증학이 전성기에 처해 있던 시점이었다. 김정희는 청나라를 방문하여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옹방강과 완원과 사승관계를 맺었고, 이후 청대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청대의 학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김정희의 학문 주장은 당시 청나라의 주류 학문이었던 고증학의 대표적 경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의 글에서는 고증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면과 고증학의 연구 경향을 경계하면서 성리학의 정통 위치를 수호하려는 경향이 동시에 감지된다. 이런 경향은 조선의 전통적인 학문 경향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그가 사승하였던 두 청대 학자의 학술 경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청대 학자, 특히 옹방강의 학문 경향 및 청대 학계에서의 위치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선 옹방강이 청대 고증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이며, 고증학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견해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어 김정희의 학문 주장을 보여주는 글로 평가되는 <실사구시설> 등 글을 옹방강, 완원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김정희의 학문 주장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2) 漆永祥, 『乾嘉考據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20, 2면.

## II. 옹방강의 학문적 경향

김정희는 1809년 12월 동지 겸 사은부사로 임명된 생부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을 따라 연행 길에 올랐다. 1810년 1월 그는 당시 49세였던 완원과 78세였던 옹방강을 만났다. 완원은 젊은 김정희를 높이 평가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옹방강은 그 후에 세 번 이상 서찰을 보내 경학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sup>3)</sup> 두 사람의 학문은 김정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김정희가 청대 학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대 학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런 이유로 김정희의 서화와 학술을 논할 때는 청대 학문, 특히 옹방강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옹방강의 영향을 고증학과 시학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sup>4)</sup> 하지만 이런 논의는 모두 청대 고증학에서의 옹방강의 위상 혹은 그의 학술적 특징에 대한 접근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감이 있다. 옹방강의 학문이 과연 당시 청대 학술의 대표적인 경향과 방향을 같이 하는지, 당시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던 건가(乾嘉) 고거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김정희의 학문이 청대 고증학과 어느 정도로 연결되거나 혹은 구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논의가 없이 바로 옹방강을 청대 고증학의 대가로 보고 논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는 옹방강이 과연 청대 고증학의 주류적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옹방강은 청대 고증학의 대표적 성향 혹은 성과를 보여주는 학자가 아니다. 옹방강은 청대 학계에서 고거학자가 아닌 이학자로 분류되며, 학문보다는 사장학(詞章學)에 치우친 학자로 청대 시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증학에 대한 그의 견해 또한 당시 고증학 진영에 있는 학자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아래 고증학을 논한 그의 글을 살펴보기로 하자.

3) 김정희와 중국 문인들의 교유에 대해서는 후지츠키 치카시, 박영희 옮김,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참조.

4) 이철희, 『秋史 金正喜의 시문학에 나타난 고증학의 영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55~285면.

고정(考訂)의 학문은 의리(義理)에 충실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광박한 것 [博]을 즐기고 자질구레한 것 [瑣]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 기이한 것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 자기자랑을 하는 것도 잘못이다. 자기자랑을 하지 않고 기이한 것을 즐기지 않으며 광박한 것과 자질구레한 것을 즐기지 않고 한마음으로 고정을 한다면 그것을 고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은 텅빈 말로 의리지학을 논하는 것에 상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무릇 고정을 하는 자는 의리에 필요한 것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널리 변별하는 것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의리의 근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 것은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말한다. 고정은 반드시 의리를 위주로 해야 한다.”<sup>5)</sup>

위의 글은 옹방강의 문집인 『복초재문집(復初齋文集)』 권7에 실린 <고정론상지일(考訂論上之一)>의 일부분이다. 옹방강은 무려 여덟 편에 달하는 <고정론(考訂論)>을 썼는데 거의 모든 글이 “그래서 나는 고정은 반드시 의리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끝맺는다. 여섯 편의 글의 취지는 모두 고증은 의리의 발명을 위해 필요하며, 의리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고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옹방강이 비판한 고증의 폐단은 광박한 것, 자질구레한 것, 기이한 것을 즐기는 것, 자기자랑을 하는 것이다. 옹방강이 광박하다고 지목한 사람은 고증학의 대표학자인 혜동(惠棟, 1697~1758)이며 자질구레하다고 지목한 사람은 역시 고증학의 대표학자인 염약거(閻若璩, 1636~1704)이다.<sup>6)</sup> 옹방강이 혜동과 염약거를 비판한 것은 그들의 고증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지리멸렬해서 의리를 밝히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옹방강은 자신의 제자인 능정감(凌廷堪, 1757~1809)이 고증을 하

5) 翁方綱, 『復初齋文集』 권7, <考訂論上之一>, “考訂之學, 以衷於義理爲主. 其嗜博, 嗜瑣者, 非也. 其嗜異者, 非也. 其矜己者非也. 不矜己, 不嗜異, 不嗜博, 嗜瑣, 而專力於考訂, 斯可以言考訂矣. 考訂者, 對空談義理之學而言之也. 凡所爲考訂者, 欲以資義理之求是也. 而其究也, 唯博辨之是炫, 而於義理之本然反置不問者, 是卽畔道之漸所由啓也. (중략) 故曰, 考訂之事必以義理爲主.”

6) 翁方綱, 『復初齋文集』 권7, <考訂論上之一>, “如近日惠棟之於易, 極意博綜而妄取他本, 以解經字. 甚至以繫辭傳‘天一地二’以下爲後人所增以富, 有日新諸語爲後人所訓, 以說卦傳乾健也以下爲後人所益. 又如近日閻若璩之於書苛求古文, 毛舉細碎, 逞其口辨. 甚至以危微精一十六字爲非經所有. 凡此等謬說, 皆起於偶有所見, 而究其自信自炫, 遂反唇而不顧其安者, 皆嗜博嗜異而不惟義理之求是也.”

는 것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옹방강의 학문이 건가 고거학의 대표적 학자들과는 학술적 성향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옹방강은 기본적으로 이학자(理學者)이며 그가 생각하는 고거는 의리지학에 도움이 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옹방강의 학문적 경향은 성리학을 숭상하는 조선의 학풍과 상당히 통하는 일면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젊은 선비인 김정희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옹방강과 친분을 맺으려고 애썼으며, 두 사람이 왜 만나서부터 서로를 깊이 인정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는 두 사람의 학문적 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옹방강이 고증학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고거를 시로 삼았다”는 평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육정추(陸廷樞)는 옹방강의 문집인 『복초재문집(復初齋文集)』의 서문에서 “답계는 여러 경서의 전소에서 사전(史傳)의 고정(考訂), 금석 문자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에 관철되어 넘쳐흐른다”라고 하였다.<sup>7)</sup> 옹방강 자신은 “시를 짓는 것과 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시와 경학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8)</sup> 이는 옹방강의 친우와 본인이 그의 시의 경향을 논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의 시학 경향을 논한 것이지 고증학 연구를 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그의 “고거를 시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시에서 고증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의 산문적 경향을 말한 것이다.

옹방강의 이런 시적 경향은 동시대 사람들의 비판도 받았다. 옹방강의 시를 비판한 사람은 홍양길(洪亮吉, 1746~1809)과 원매(袁枚, 1716~1798)인데, 홍양길은 고거학의 진영에 있었던 인물이고 원매는 성령설(性靈說)을 주장하면서 옛날에는 경학(經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이다. 서로 반대되는 진영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옹방강 시의 고거학적 경향을 비판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우선 원매의 비판을 보

7) 陸廷樞, 『復初齋詩集』 권1, <復初齋詩集序>, “覃溪自諸經傳疏以及史傳之考訂, 金石文字之爬梳, 皆貫徹洋溢於其詩.”

8) 翁方綱, 『復初齋文稿』, 冊1, <與姬川郎中論何李書>, “作詩與解經誠爲一事矣. 不然則學自學, 而詩自詩, 誠其人而僞其言也. 竊爲執事惜.” 台北: 文海出版社, 1974. 傅元瓊, 『翁方綱與姚鼐的詩學觀及題跋詩創作之比較』, 『天中學刊』, 第33卷 第2期, 2018년 4월, 112면에서 재인용.

도록 하자.

사람이 가슴 가득 서권 지식이 있어서 펼칠 데가 없으면 고거의 학문을 하여 일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변려문을 지어서 나열을 해도 얼 마든지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시를 빌려서 자랑을 하는 것인가?)

“고거의 학문을 하여 일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은 옹방강이 고거학에 전념하여 일가를 이룬 것도 아니라고 비꼰 것이다. 자신의 지식을 펼치고 싶으면 고거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그것을 문학으로 드러내고 싶으면 그에 적합한 변려문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하필 학문과 가장 거리가 있는 시에서 지식을 늘어놓는가 하는 비판인 것이다. 원래는 학문과 시를 하나로 보는 옹방강의 시학관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에 그가 시의 본질을 흐린다고 본 것이다.

홍양길은 옹방강에 대해 “객이 금석례(金石例)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만, 공에게 성정시(性情詩)가 없는 것을 조금 꺼린다. 금석학이 공의 전문인데, 늘 시에 고증을 넣으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sup>10)</sup> 이로부터 원매와 홍양길의 비판은 옹방강의 시에 학문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옹방강이 고거학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하는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가 연간에 고거학은 이미 청대 학계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학문 풍토로 자리를 잡았다. 고거학의 대표적 학자는 물론이려니와 고증학의 진영에 있지 않은 문인들 또한 고증학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옹방강은 “선비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경적의 빛이 천하에 가득차 있으므로, 학문은 반드시 고증을 준칙으로 삼아야 하고 시는 반드시 기리(肌理)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sup>11)</sup> 청대 고거학은 강희 연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민간에서 조정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과거시험과 서원의

9) 袁枚, 『隨園詩話』, “人有滿腔書卷, 無處張皇, 當爲考據之學, 自成一家. 其次, 則駢體文盡可鋪排. 何必借詩爲賣弄?”,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82.

10) 洪亮吉, 『北江詩話』 권1, “蓋金石學爲公專門, 詩則時時欲入考證也.”

11) 翁方綱, 『復初齋文集』 권4, <志言集序>, “士生今日, 經籍之光盈溢於世宙, 爲學必以考證爲准, 爲詩必以肌理爲准.”

창설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건륭, 가경 연간의 고증학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소학 연구 외에 고서 통례 귀납법의 객관화와 규율화, 실사구시와 무징불신(無徵不信)의 증명방법, 박학하되 정밀함을 추구하고 종합적인 회통(會通)을 중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sup>12)</sup> 청대 학자들은 또한 보편적으로 ‘학(學)’을 중시했는데 이는 신운설(神韻說)을 주장한 왕사정(王士禎), 성령설(性靈說)을 주장한 원매 등 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송학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결코 고거학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옹방강 또한 한학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옹방강은 고증학이 이처럼 흥성한 때는 없었다고 하면서 학자들은 한학과 송학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한학과 송학의 경계를 구획한 것도 잘못이요, 반드시 한학과 송학의 범위를 통하게 하려는 것 역시 잘못이다”라고 하였다.<sup>13)</sup> 옹방강은 또 고증학에 종사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예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고정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두 병폐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sup>14)</sup> 이는 한학과 송학을 동시에 긍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고증학이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던 학문적 풍토를 생각해 볼 때, 옹방강의 주장은 사실 송학의 위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 III. <실사구시설>의 의미

김정희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은 선행연구에서 그의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글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가 청대 고거학을 받아들인

12) 漆永祥, 앞의 책, 70~96면.

13) 翁方綱, 『復初齋文集』 권7, <考訂論之一>, “然而上下千古通徹言之, 則考訂之學未有盛於我國朝者也。宋人之推歐陽子也, 曰通經學古爲高, 乃歐陽氏之於考訂尙有待焉者, 則通經學古之事, 必於考訂先之。雖沿有明之制藝而實承宋儒之傳義, 萃漢唐之注疏, 則未有過於今日者也。學者幸際斯時, 其勿區漢學宋學而二之矣。然而劃漢學宋學之界者, 固非也。其必欲通漢學宋學之郵者, 亦非也。”

14) 翁方綱, 『復初齋文集』 권7, <考訂論之二>, “考訂與不考訂皆無弊矣.”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는 글에서 공소한 의론을 하지 말고 훈고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사구시설>의 내용을 따져보면 그것이 고증학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서(漢書)』 <하간헌왕전(河間獻王傳)>에 이르기를, “사실에 의거하여 사물의 진리를 찾는다(實事求是)” 하였는데, 이 말은 곧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리이다. 만일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다만 허술한 방도를 편리하게 여기거나, 그 진리를 찾지 않고 다만 선입견(先入見)을 위주로 한다면 성현(聖賢)의 도에 있어 배치(背馳)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한유(漢儒)들은 경전(經傳)의 훈고(訓詁)에 대해서 모두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어 정실(精實)함을 극도로 갖추었고, 성(性), 도(道), 인(仁), 의(義) 등의 일에 이르러서는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서 깊이 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추명(推明)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히 주석(注釋)이란 것이 있으니 이것은 진정 사실에 의거하여 그 진리를 찾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15)</sup>

『한서』 <하간헌왕전>에 나오는 ‘실사구시’라는 어휘는 청대 고증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워졌는데, 홍양길(洪亮吉)은 소진함(邵晉涵)의 학문을 “본원을 추구하고 실사구시한다”라고 이야기했고<sup>16)</sup> 완원(阮元)은 스스로 자신의 학문을 “고훈(古訓)을 미루어 밝히고 실사구시한다”라고 하였다.<sup>17)</sup> 김정희도 “옛 학문을 하는 방법은 실사구시이다”라고 말했는데<sup>18)</sup> 위의 인용문에서 사실에 의거할 것을 주장하고 선입견을 반대한 것은 청대 고증학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말한 사실은 바로 훈고를 말하며 실사구시란 공소한 의론을 하지 않고 훈고에 근거하여 정확한 내용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실사구시’가

15)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實事求是說>, “漢書河間獻王傳云, ‘實事求是’, 此語乃學問最要之道。若不實以事而但以空疎之術爲便, 不求其是而但以先入之言爲主, 其于聖賢之道, 未有不背而馳者矣。漢儒于經傳訓詁, 皆有師承, 備極精實。至于性道仁義等事, 因爾時人人皆知, 無庸深論, 故不多加推明。然偶有注釋, 未嘗不實事求是也。”

16) 洪亮吉, 劉德權 點校, 『洪亮吉集』 『卷施閣文甲集』 권9, <邵學士家傳>, 192면.

17) 阮元, 『學經室集』 상, <自序>, “餘之說經, 推明古訓, 實事求是而已, 非敢立異也.”

18) 金正喜, 『阮堂全集』 권5, <代權彝齋敦仁與汪孟慈喜孫>, “修古, 實事求是者也。至以爲十四博士家法, 因鄭學而盡亡亡, 立太峻.”

청대 고증학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훈고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학자들은 훈고를 정밀히 탐구한 한유(漢儒)들을 높이 여기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일이다. 다만 성현의 도는 비유하자면 마치 갑제 대택(甲第大宅)과 같으니, 주인은 항상 당실(堂室)에 거처하는데 그 당실은 문경(門逕)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훈고는 바로 문경이 된다. 그러나 일생동안을 문경 사이에서만 분주하면서 당(堂)에 올라 실(室)에 들어가기로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끝내 하인(下人)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훈고를 정밀히 탐구하는 것은 당실을 들어가는 데에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훈고만 하면 일이 다 끝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sup>19)</sup>

(중략)

그런데 진(晉)·송(宋) 이후로는 학자들이 고원(高遠)한 일만을 힘쓰면서 공자(孔子)를 높이어 ‘성현의 도가 이렇게 천근(淺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이에 올바른 문경을 싫어하여 이를 버리고 특별히 초묘 고원(超妙高遠)한 곳에서 그것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허공을 딛고 올라가 용마루(堂脊) 위를 왕래하면서 창문의 빛과 다락의 그림자를 가지고 사의(思議)의 사이에서 이를 요양하여 깊은 문호와 방구석을 연구하지만 끝내 이를 직접 보지 못하고 만다.<sup>20)</sup>

김정희는 성현의 도를 당실에 비유하고 훈고를 문경에 비유하였다. 여기서 당실은 학자가 들어가야 할 목적지, 즉 학문의 핵심이며, 훈고는 당실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즉 훈고는 성현의 도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며, 결코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희는 일생동안을 훈고를 하는 데만 바친다면 그것은 당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경에서만 분주한 노복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19)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實事求是說>, “學者尊漢儒, 精求訓詁, 此誠是也. 但聖賢之道, 譬若甲第大宅. 主者所居, 恒在堂室. 堂室非門逕不能入也. 訓詁者, 門逕也. 一生奔走于門逕之間, 不求升堂入室, 是廝僕矣. 故爲學, 必精求訓詁者, 爲其不誤于堂室, 非謂訓詁畢乃事也.”

20)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實事求是說>, “學者尊漢儒, 精求訓詁, 此誠是也. 但聖賢之道, 譬若甲第大宅. 主者所居, 恒在堂室. 堂室非門逕, 不能入也. 訓詁者門逕也. 一生奔走于門逕之間, 不求升堂入室, 是廝僕矣. 故爲學, 必精求訓詁者, 爲其不誤于堂室, 非謂訓詁畢乃事也.(중략) 晉宋以後, 學者務以高遠. 尊孔子, 以爲聖賢之道不若是之淺近也, 乃厭薄門逕而棄之, 別于超妙高遠處求之. 于是乎躡空騰虛, 往來于堂脊之上. 窓光樓影, 測度于思議之間. 究之與戶屋漏, 未之親見也.”

여기서 훈고에 대한 김정희의 태도가 고정(考訂)에 대한 옹방강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훈고는 학문의 근본인 의리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경로지만, 궁극적으로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결국은 훈고가 아닌 의리 연구야말로 핵심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점은 김정희가 혜동에 대한 옹방강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사구시설’의 핵심 주장은 결코 훈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성인의 도가 근본이고 훈고는 말단이라고 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희가 말하는 실사구시는 청대 고증학과는 같은 맥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인보(鄭寅普)는 『완당전집(阮堂全集)』의 서문에서 김정희의 실사구시의 학문의 연원을 청대 학문이 아닌 조선의 학문에서 찾고 있다.

공은 어려서 특이한 자품을 타고난 데다 부친 유당공(酉堂公)이 넓은 식견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이미 부친의 학문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글을 숭상하고 옛 도를 상고하던 정조 시대를 만나서는 『상서(尙書)』 고문(古文)에 관한 의문점을 발명함에 따라 사대부들이 점차로 그 은택을 입음으로써 석천(石泉), 다산(茶山), 아정(雅亭), 정유(貞莸) 등 여러 경사(經師)들이 급진적으로 정(鄭)·허(許)를 능가하였으니, 이것이 또 공의 앞길을 열기에 충분하였다.

공이 약관(弱冠) 시절에 사신 가는 부친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서 옹방강·완원과 교류하고 그 후로는 그들과 서신 왕래를 한 것이 매우 빈다하였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그 사실만 보고서 마침내 그의 학문이 여기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일찍부터 가정(家庭)과 사우(師友)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이요, 그들을 힘입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대체로 학문의 본원(本源)을 깊이 터득한 공에 대하여 한갓 서예와 고증학만을 중시하는 것은 또한 얕은 것이다. 그러나 그 서예와 고증학에 대해서도 다만 막연히 중시할 뿐이요, 그 진가를 능히 알 사람이야 몇이나 되겠는가.<sup>21)</sup>

21) 鄭寅普, 『阮堂先生全集』, <序>, “公幼挺異稟. 父酉堂公閱識求是, 在家固已承藉父學. 值正廟右文稽古, 發尙書古文之疑, 士大夫浸漸膏澤. 石泉, 茶山, 雅亭, 貞莸諸經師, 駉駉鶴鄭許, 又足以開公之先. 弱冠, 隨父使燕, 交翁, 阮, 嗣後往復至繁. 世見其然也, 遂以爲自此得之. 不知其早傳自家庭師友, 不待是而後得也. 夫以公之深契本原, 徒以書藝, 考據重, 抑淺矣. 於其書與學, 亦

정인보는 김정희의 실사구시적 학문태도가 부친 김노경(金魯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정조 시대에 『상서』 고문의 의문점을 발명하였다는 것은 염약거가 주장한 『고문상서』 위작설을 조선의 학계에서 수용한 것을 가리킨다. 정인보는 이어서 신작(申綽), 정약용(丁若鏞),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가 경학 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들의 학문이 김정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정약용을 비롯한 학자들이 경서 연구에서 거둔 성과를 말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정희의 학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한 학자들은 전부 조선의 문인이다. 정인보는 김정희가 청대 학자들과 교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김정희의 학문은 가정과 사우(師友)들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지 동시대 청나라 문인들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사실 정인보의 주장은 합리적인 일면이 있다. 김정희는 청나라 문인 이장욱(李璋煜, 1784~1857)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은 『서경』의 금고문(今古文)에 대한 일에서 옹방강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22)</sup> 『서경』의 금고문에 대한 일이란 염약거가 고증을 통해 『고문상서』 위작이라고 밝힌 일을 말한다. 옹방강은 염약거의 『고문상서』 고증작업이 의리에 해가 된다고 여겨 비판했는데, 김정희는 자신이 옹방강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고문상서』 위작설을 받아들였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고증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미 정조 때 염약거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선의 학문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기에 가정과 스승, 벗들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IV. 한학과 송학의 관계

물론 김정희의 <실사구시설>은 조선의 학문만을 바탕으로 지어진 글은 아니다. <실사구시설>은 완원의 <국사 유림전을 모방하여 쓴 글에 쓴 서

第漫然重之。其能得其眞者幾人哉?”

22)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권5, <與李月汀璋煜>, “不佞於覃溪, 習熟者也。寔不敢盡爲曲循影從, 頗有異同。其大異而不敢苟同者, 爲書之今古文.”

문(擬國史儒林傳序)>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김정희는 <실사구시설>에서 성현의 도를 당실(堂室)에 비유하고 훈고를 문경(門徑)에 비유하였는데 사실 이는 완원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성인의 도는 마치 주택의 담벽과 같고 문자의 훈고는 그 문 앞에 난 작은 길과 같다. 길이 잘못 되면 반걸음도 길에 맞지 않게 되니 어찌 당에 오르고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배우는 사람들이 도를 구함에 너무 높은 것만 추구하고 장구(章句)를 무시한다면 마치 하늘 위에서 날면서 높은 집 위에 있는 것과 같아 높기는 높지만 문안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하였다. 혹은 명물(名物)만을 구하면서 성인의 도를 논하지 않는다면 마치 일년 내내 행랑에서 먹고 자면서 당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sup>23)</sup>

완원의 이 글이 앞에서 인용한 김정희의 <실사구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완원은 송학과 한학을 절충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위의 글은 성인의 도를 핵심으로, 훈고를 성인의 도에 들어가기 위한 경로로 제시하면서 송학과 한학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성인의 도가 핵심이고, 훈고가 그것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정희는 완원의 글에서 당실과 문경의 비유, 성인의 도와 훈고의 관계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다. 다만 본인의 해석과 묘사를 덧붙임으로써 글이 훨씬 더 생동하고 형상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완원의 글이 한학과 송학 하나만을 강조하는 경향의 폐단을 비슷한 분량으로 비판한 데 비해 김정희의 글은 훈고만 중시하는 폐단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희는 곧이어 한학과 송학의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성현의 도는 몸소 실천하면서 공론(空論)을 숭상하지 않는 데에 있으니, 진실한 것은 의당 강구하고 헛된 것은 의거하지 말아야지, 만일 그윽하고 어

23) 阮元, <擬國史儒林傳序>, “聖人之道, 譬若宮牆。文字訓詁, 其門徑也。門徑苟誤, 跬步皆歧, 安能升堂入室乎? 學人求道太高, 卑視章句, 譬猶天際之翔, 出於豐屋之上。高則高矣, 戶與之間未窺也。或者但求名物, 不論聖道, 又若終年寢饋於門廡之間, 無復知有堂室矣。”

두운 속에서 이를 찾거나 텅 비고 광활한 곳에 이를 방치한다면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여 본의(本意)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방도는 굳이 한(漢)·송(宋)의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고, 굳이 정현(鄭玄)·왕숙(王肅)과 정자(程子)·주자(朱子)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주희(朱熹)·육구연(陸九淵)과 설선(薛瑄)·왕수인(王守仁)의 문호를 다룰 필요가 없이 다만 심기(心氣)를 침착하게 갖고 널리 배우고 독실히 실천하면서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다.’는 한마디 말만을 오로지 주장하여 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24)</sup>

진실한 것을 강구하고 헛된 것을 의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이며, 그윽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찾거나 텅 비고 광활한 곳에 방치한다는 것은 육구연(陸九淵)과 왕수인(王守仁)의 심학일 것이다. 김정희는 위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진(晉)대의 노장, 불교 학설로 인해 학술이 실사구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였고 뒤에서는 육왕(陸王)의 학파가 유(儒)를 이끌어 석(釋)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실사구시는 노장, 불교의 학설과 명대의 육왕 학파의 심학과 대척점에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치 선명하게 실사구시를 주장하던 글이 다음 단락에 가서 갑자기 굳이 한학과 송학의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고 정현, 왕숙과 정자, 주자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주희, 육구연과 설선, 왕수인의 문호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앞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설에 대해 갑자기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한 것이다. 주희와 육구연, 설선과 왕수인의 문호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성격이 다른 학파를 다 수용해도 된다는 의미였을까? 만약 위의 인용문을 육구연과 왕수인의 학문을 따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앞의 내용과 모순된다. 기껏 비판해 놓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완원이 송학을 핵심에 놓고, 한학을 송학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옹방강이 일찍이 <실사구시잠(實事求是箴)>을 써서 김정희에게 준 적

24) 金正喜, 『阮堂全集』 권1, <實事求是說>, “故爲學之道, 不必分漢宋之界, 不必較鄭, 王, 程, 朱之短長, 不必爭朱, 陸, 薛, 王之門戶. 但平心靜氣, 博學篤行, 專主實事求是語, 行之可矣.”

이 있으므로 옹방강의 학술 주장과도 연결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5)</sup> 위의 글에서 나오는 “심기를 침착하게 갖는다”는 말은 옹방강의 글에서 온 것이다. 옹방강은 <고문상서조변서(古文尙書條辨序)>에서 “경을 이야기하려면 침착한 마음과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염약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옹방강은 염약거가 격분하고 불평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경을 연구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또 『고문상서』는 그에 의탁하려고 한 뜻이 중요한데 자구에만 근거하여 위작인지 여부를 고증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고 하였다.

옹방강이 한학과 송학의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당시 한학이 주도적 지위에 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었다. 옹방강은 당시 학문적 풍토에 대해, 고거학을 모르는 학자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런 학자들 중에는 상당히 명망이 있는 문인들도 있었다. 옹방강은 장사진(蔣士銓)이 양주(揚州)에서 제생들에게 강의할 때 박학으로 유명한 왕중(汪中)의 질문에 감히 대답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고, 유옹(劉壘)·전재(錢載) 등도 고증에 능하지 않았기에 감히 고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sup>26)</sup> 이는 강력한 고증학의 영향력 아래 고증학에 능하지 않았던 학자들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잘 말해준다. 그러므로 옹방강이 훈고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고 한학과 송학의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한학과 송학을 굳이 통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 고거학의 압박에 맞서 송학을 수호하려는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학과 이학에 대한 김정희의 태도와 결부시켜 볼 때 그가 말한 “문호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한학과 송학을 동등하게 보고 두 가지 부류의 학문을 통합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청나라에서 전성기에 있었고 조선에도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한학의 성과를 수용하되, 송학을 연구하기 위한 문경과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보

25) 박철상, 『추사 김정희의 저작 현황 및 시문집 편간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5, 대동한문학회, 2006, 7면.

26) 翁方綱, 『復初齋文集』 권7, <考訂論中之二>, “吾所識如諸城劉閣老壘之於金石碑板, 及錢侍郎載之於詩文, 皆不善於考訂, 而不敢公然斥考訂爲非.”

아야 할 것이다. 육구연과 왕수인의 학문까지도 따로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한학에 대한 수용에서 나타난 모순적인 태도이다. 김정희는 『실사구시설』의 윗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글에서도 왕수인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학에 대한 태도 역시 그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V. 사승(師承)의 중시

문헌을 함부로 맹신하지 않고 신중한 변별을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은 고증학의 매우 중요한 추동력 중의 하나였다. 위서(僞書) 변별은 고증학의 매우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그 동기는 문헌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청대 고증학이 흥기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명대 말기 출판업의 발전으로 대량 인쇄된 문헌의 품질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는 고증학의 매우 중요한 역할과 특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고증의 과정에 일부 경서를 위작이라고 판정하거나 경서의 원문을 마음대로 산삭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유명한 고증학자인 왕명성(王鳴盛, 1722~1798)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經)을 연구할 때는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史)를 다룰 때에는 사마천, 반고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도 된다. 이것이 경학과 사학의 차이이다. 경을 연구할 때만 특히 경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경문(經文)은 어렵고 깊어서 통하기 어려운데 옛 전주(傳注)에 대해 자신의 뜻대로 취사선택하여 통합하고 관통하려고 한다면 더욱 참월(僭越)을 면치 못한다. 다만 한대(漢代) 사람들의 가법(家法)을 묵수하여 한 스승을 중유하며 다른 것으로 옮기지 말아야 할 따름이다.<sup>27)</sup>

왕명성에 따르면 문헌에 대한 의심은 사학에는 가능하지만 경학에는 절

27) 王鳴盛, <十七史商榷序>, “治經斷不敢駁經。而史則雖子長, 孟堅, 苟有所失, 無妨箴而砭之。此其異也。抑治經豈特不改駁經而已。經文艱奧難通, 若於古傳注, 憑己意擇取融貫, 擾未免於僭越。但當墨守漢人家法, 定從一師而不敢他徒。”



대 허용되지 않는다. 경서나 한대 사람들의 주석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해에 따라 취사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이해를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옹방강도 전통 경전의 지위를 필사적으로 수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염약거의 『고문상서』 위작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고증학자들의 연구를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정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사승을 중시하고, 함부로 한대의 주석을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옹방강이 한대의 주석이 모두 정확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시 고증학의 성과를 받아들여 정현(鄭玄)의 주석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다고 해도 정현과 같은 한대 학자들은 사승한 바가 있었고 성인의 시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정희의 주장은 옹방강과 완전히 일치한다. 김정희도 사승(師承)과 가법(家法)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한대 학자들의 주소(注疏)를 의심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약용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김정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저 정현(鄭玄)의 주가 의심나는 곳이 매우 많지만 이는 다 사실(師說)이요 가법(家法)이니, 비록 지금 사람의 견문에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을지라도 만약 성화(成化)의 자(磁)나 만력(萬曆)의 요(窯)를 가지고 봉우과사(鳳羽波沙)에 의심이 가게 한다면 너무도 불가한 것입니다. 뒷사람이 정(鄭)을 반박하는 까닭은 자기의 한 가지 반 토막에 지나지 않는 식해(識解)를 가지고서 어찌다 새롭고 기특하여 기뻐할 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 공격하여 있는 힘을 남기지 않곤 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하면 자기가 공격한 그 자체는 특별히 사실(師說)도 없고 또 가법도 아닌 것입니다.

저 왕숙(王肅) 같은 무리들이 힐난한 것은 뜻을 두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여 스스로 독특함을 자랑한 것이며, 경(經)의 뜻이 날로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데에 이르러서는 전혀 생각조차 아니한 것이니, 이는 또 뒷사람들이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sup>28)</sup>

28) 金正喜, 『阮堂全集』 권4, <與丁茶山若鏞>, “大抵鄭注之可疑處甚多, 然此皆師說也家法也. 雖有不合於今人見聞, 若以成化之磁, 萬曆之窯, 致疑於鳳羽波沙, 大不可也. 後人所以駁鄭者, 以

서신의 내용을 보면 정약용은 정현의 주에 대해 의심하고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정희는 정현의 주는 스승의 설과 가법을 이어받은 것이기에 지금 사람의 견문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다. 왕숙(王肅, 195~256)은 삼국 시기의 학자로, 그의 경전 주석은 정현과 대척점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하여 공자와 자손들의 이름을 가탁하여 『공총자(孔叢子)』, 『성증론(聖證論)』 등 위작을 썼는데 김정희는 정현의 학설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정약용에게 왕숙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정현의 주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통적 지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사승을 강조하는 태도는 사실 진정한 ‘실사구시’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여 ‘옳음(是)’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성현의 주장에 대해 신앙에 가까운 맹목적 추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학의 절대적 지위를 수호하려는 이학자의 태도와 상통하며, 청대 고증학에서는 의리를 중시하는(일부 고증학자 포함) 경향을 가진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 VI. 결론

김정희는 19세기 청대 학문과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인 옹방강, 완원 등과 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나라의 학술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과 예술의 교류와 소통에 힘썼다. 하지만 그가 중점적으로 교유했던 인물이 청대 고증학의 대표적 학자가 아니라, 이학자로 분류되는 옹방강과 한학과 송학을 절충하는 입장이었던 완원이라는 점은 청나라 학술을 받아들이는 그의 입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옹방강과 완원은 훈고를 중시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리지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김정희의 주장과 일치한

己之一知半解，偶有新奇可喜處，毅然奮起而攻之，不遺餘力。反以思之，己之所攻者，別無師說，又非家法也。如王肅輩之所難，無非有意立異，以自銜奇。至如經旨之日以剝喪者，全不顧念。此又後人之大戒也。”

다. 이는 성리학을 위주로 하는 조선의 학문이 고증학이 맹위를 떨치고 있던 청대 학술과의 접합점을 찾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조선의 학문이 청대 학문과 이어지고 소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김정희의 <실사구시설>은 완원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작품이다. 글에서 성현의 도를 당실(堂室)에 비유하고 훈고를 문경(門徑)에 비유한 것은 완원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며, 한학과 송학을 구분하지 말고 아울러 받아들이고 실사구시적 자세로 학문을 하자고 주장한 것은 완원과 옹방강 두 사람과 모두 통하는 점이 있다. 완원은 한송절충론자로 자처하였으며 훈고와 의리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거학에 대한 옹방강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옹방강이 말한 ‘실사구시’는 훈고를 중시하되 그것이 의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옹방강이 훈고를 중시한 것은 당시 고증학의 영향에서 경전의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희의 <실사구시설>은 고증학의 성과를 수용하되 사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훈고는 다만 의리를 구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낸 것으로, 성리학 중심의 조선 학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옹방강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사승과 가법을 중시하고 정현의 주석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진정한 실사구시적 태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런 맥락에서 김정희의 태도는 고증학자보다는 성리학적 경향을 띤 학자에 가깝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正喜, 『阮堂全集』, 한국고전번역원.  
洪亮吉, 劉德權 點校, 『洪亮吉集』, 中華書局, 2021.  
翁方綱, 『復初齋文集』, 목판본, 북경대소장본 전자과일.  
阮元, 鄧經元 點校 『擘經室集』, 中華書局, 1993.

### 2. 단행본

- 漆永祥, 『乾嘉考據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20.  
후지즈카 치카시, 박희영 옮김,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 3. 논문

- 박철상, 『추사 김정희의 저작 현황 및 시문집 편간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5, 대동한문학회, 2006, 5~42면.  
서근식,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 재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학』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33~262.  
신창호,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實事求是)』 교육관-“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7, 한국교육사학회, 29~50면.  
이선경, 『秋史 金正喜 思想의 實事求是의 특성』, 『한국철학논집』 19, 한국철학사연구회, 361~384면.  
이철희, 『秋史 金正喜의 시문학에 나타난 고증학의 영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55~285면.  
傅元瓊, 『翁方綱與姚鼐의 詩學觀及題跋詩創作之比較』, 『天中學刊』 第33卷 第2期, 2018년 4월, 108~114면.

## The Academic Trend of Kim, Jeong-hee's *Silsaguisisbeol*(實事求是說) through the Comparison with Weng, Fang-gang

Jin, Hong-mei

The Qing Dynasty of the 19th century, where Kim, Jeong-hee, lived, was at the height of textual criticism. Kim, Jeong-hee, visited the Qing Dynasty and established a private relationship with Weng, Fang-gang(翁方綱) and Ruan, Yuan(阮元), who were famous scholars at the time, and actively accepted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Qing Dynasty. *Silsaguisisbeol*(實事求是說) is an important work that shows Kim, Jeong-hee's academic tendency,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but it is regrettable that the influence relationship with Qing Dynasty scholarship has not been properly investigated.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yet discussed in depth how Weng, Fang-gang, who directly guided Kim Jeong-hee's study, was a person in Qing Dynasty textual criticism, and in what ways Kim Jeong-hee's studies lie in succession or influence with Joseon studies and Qing studies at the tim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d Kim, Jeong-hee's perspective on historical studies in comparison with Weng, Fang-gang and its relevance to Qingdai Studies, focusing on the *Silsaguisisbeol*, which is evaluated as an article that shows Kim, Jeong-hee's tendency to historical studies. Weng, Fang-gang was a person who lived in the heyday of Qing Dynasty textual criticism, and although he was deeply influenced by it, his position in Qing Dynasty academia was not a historical scholar, but a Neo-Confucianism scholar, and he criticized and rejected representative scholars of textual criticism.

Kim, Jeong-hee, showed an attitude to actively accept the research results of textual criticism, but his attitude toward explanations of words in ancient books and loyalty is basically no different from Weng, Fang-gang. His *Silsaguisisbeol* is an article that emphasizes explanations of words in ancient books, but reveals that it is only

a way to express loyal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attitude of presiding over the orthodox status of Confucian classics and oriental scholar Zheng, Xuan(鄭玄) while emphasizing Neo-Confucianism is a true practical attitude, and it tends to be biased toward Neo-Confucianism rather than textual criticism.

Keywords: Kim, Jeong-hee(金正喜), Weng, Fang-gang(翁方綱), Silsagusi(實事求是), Textual Criticism, Neo-Confucianism

접수일자: 2022. 9. 30. 심사기간: 2022.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2. 11. 10.
---